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활용을 위한 “디스플레이 전시와 온라인 박물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Plans to Operate Exhibition Displays and Online Museums” to Utilize Korean Cultural Property Located Abroad

박성환*, 최희수**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Sung-Hwan Park(sooen12@nate.com)*, Hee-Soo Choi(choice@smu.ac.kr)**

요약

국내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재단은 해외 한국문화재 소장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는 보존·복원 및 전시, 교육 등의 활용기반이 되고 있다. 국외에서 한국문화재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전시 등의 활용은 활성화 되어있는 반면 국내는 연구조사 결과를 통한 활용의 사례가 많지 않으며,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해 국내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디스플레이 전시와 온라인 박물관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국외소재문화재 | 문화재 접근성 | 디스플레이전시 | 온라인박물관 |

Abstract

Several Korean cultural property-related foundations have investigated Korean cultural property located abroad with the help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wning Korean cultural objects and the investigation results serve as the basis of preservation/restoration, exhibition, and educational efforts. Korean cultural objects have been widely used abroad, for instance, for research and exhibition purposes, whereas in Korea, there are still only very few examples of using cultural property based on research results and accessibility to cultural property located abroad is also low.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lans to utilize Korean cultural property located abroad in Korea, and exhibition displays and online museums can be good ways to utilize Korean cultural property located abroad. These will help increase access to Korean cultural property located abroad and find a variety of applications, including exhibitions, education.

■ keyword : | Cultural Property Located Abroad | Access to Cultural Property | Exhibition Displays | Online Museum |

*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2016 춘계 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입니다.

접수일자 : 2016년 10월 17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9일

교신저자 : 최희수, e-mail : choice@smu.ac.kr

I. 서론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와 관련 있는 여러 재단 중 하나인 국외소재문화재단은 201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해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활용,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해외 박물관과 미술관 및 민간인 중 한국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환수, 보존·복원 및 활용지원, 홍보교육,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세계 속에 우리문화재의 가치를 밝혀내고 한국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 한국 문화재에 대한 활발한 활용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활용은 홍보교육, 도록 제작 및 대여 유물 전시 등이다. 홍보교육 및 도록 제작은 전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여 유물 전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본 논문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디스플레이 전시와 온라인박물관 운영을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활용방안을 통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국내 접근성을 높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지원 사업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1.1 국가별 한국문화재 보유 현황

국외에 퍼져있는 문화재는 총 167,968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이 71,422점으로 가장 많은 한국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중국, 영국 순으로 한국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1].

매년 국외 박물관 및 미술관 민간단체와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 파악에 대한 수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 국외 기관별 한국문화재 현황

[표 1]은 한국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장국, 소장처, 수량에 대한 간략한 표이며, 한국문화재를 소장한 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약 20개국 558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558개소 중 한국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67개소이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국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부재 및 전시 공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문화재의 활용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2].

표 1.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소장국	소장처	수량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등	71,422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46,641
독일	켈른동아시아박물관 등	10,940
중국	북경고궁박물관 등	9,825
영국	영국박물관 등	7,955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5,633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 등	3,319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등	2,881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3,289
오스트리아	빈민속박물관 등	1,511
덴마크	국립박물관	1,278
네덜란드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1,327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1,024
헝가리	헤렌쯔호프중앙미술박물관	341
바티칸	민족박물관	298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등	119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등	56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등	51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41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	17

[표 2]는 한국문화재에 대한 전시 및 활용이 활성화되어있는 국외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 및 소장 유물에 대한 표이다.

과거 해외 기관들의 한국문화재 활용은 미비하였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한국 기관들과의 교류 및 지원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표 2. 주요 한국문화재 소장처 및 전시 품목

소장처	수량	주요 전시 문화재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1,063점	한국회화, 조각, 공예, 복식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	1,200여점	도자기, 회화, 판화, 서예, 가구 문서류 등
미국 샌프란시스코 Asian Art Museum	850여점	도자, 회화, 판화, 서예, 가구, 조각, 직물 등
미국 보스턴 Museum of Fine Arts	700여점	토기, 청자, 불화, 불상 등
네덜란드 라이덴국립박물관	600여점	갑옷, 토기, 민속품, 복식품, 풍석화 등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440여점	회화, 도자기, 불상, 조각 금속 직물 등
미국 미시간대학교	400여점	청자, 백자, 토기, 가구



그림 1. 호놀룰루박물관 한국실

2. 지원 및 활용 사례

2.1 문화재 복원·복구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은 매년 평균 250,000명의 방문객이 찾는 미국 서부의 주요 미술관이다.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은 회화, 조각, 도자기, 칠기, 금송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800여 점이 넘는 한국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칠기 4점은 상태가 좋지 못해 공개되지 못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전문가 지원을 통해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복원·보존 지원 사업을 통해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한국칠기는 현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칠기 연구에도 도움을 주었다.

2.2 전시실 개·보수 지원

과거 미국 호놀룰루박물관의 한국미술 소장품은 제한된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었으며, 도자기의 경우 800여점이 넘는 도자기 중 몇 점만이 전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시공간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며 한국 전시실을 재개관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전시실은 박물관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유명한 컬렉션 중 하나가 되었다. 지원을 통해 재개관한 한국전시실은 한국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한국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3 전문가 파견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유무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문가가 파견된 박물관·미술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한국문화재와 관련된 행사 및 전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박물관 중 한국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미술 전담 및 전공 큐레이터가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로 파견된 큐레이터 및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재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올바른 가치 전달에 기여함으로써 한국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3].

2.4 전시관 운영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3년 1월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았다. 현재 주미대한제국공사는 복원 및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미공사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진과 문서의 발견을 통해 과거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미공사관 1층과 2층은 사진과 관련문서를 통해 과거 모습 그대로의 복원을 진행하며, 3층은 전시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우리 문화를 알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거점의 역할을 할 것이며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통해 국외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II. 활용 사례 분석

1. 디스플레이 활용 전시

1.1 ‘다시 만난 우리문화 유산전’

2014년 10월 문화재청·KBS·LG전자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된 ‘다시 만난 우리문화 유산전’은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전시 사례이다.

첫 번째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진행된 ‘다시 만난 우리문화 유산전’은 근정전을 중심으로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선명한 화질의 디스플레이 화면과 각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왜곡 없는 화면의 전달은 많은 인원이 동시 관람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시의 장점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전시는 야외가 아닌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 2관에서 진행되었다.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전시는 2D 화면 이외에 3D화면이 추가 구성되었다. 특히 3D화면을 통한 360도 회전은 이전 전시보다 큰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시 만난 우리문화 유산전’은 국민들에게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아름다움과 활용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전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림 2. ‘다시 만난 우리문화 유산전’ 전시 모습

1.2 ‘디지털 귀향’ 展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 ‘디지털 귀향전’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중 국보급 회화 작품 7점의 회화작품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을 활용해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의 중심 주제인 회화 작품 중 종이 혹은 비단 위에 그려진 회화작품은 훼손 정도가 높고 보존이 어려운 분야였다.

또한 보존과정에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오랜 기간과

인력이 필요하여 실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귀향’ 디지털 복원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복원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디스플레이화면을 통해 효율적으로 회화 작품을 표현할 수 있었다.

‘디지털 귀향’전은 자칫 사라질 수 있었던 우리의 문화재를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디지털 복원과 복원 후 디스플레이 화면을 활용하여 전시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품이 지닌 스토리에 따라 애니메이션 효과를 삽입하여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있어 몰입도를 높여 줄 수 있었다[4].



그림 3. ‘디지털 귀향’ 전, 몽유도원도 전시 모습

2. 인터넷 박물관

2.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소장품 7,625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소장품은 주요 소장품 검색, 국보·보물 검색,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전국박물관 소장품으로 구분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카테고리인 주요 소장품은 일반검색과 디렉토리 검색 2가지의 기능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5].

일반검색은 유물명, 한자 명칭, 국적/시대, 출토지, 재질, 작가, 기증자, 문양, 용도, 국보/보물지정번호, 유물 코드로 세분화하여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하는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당 유물을 검색할 수 있다.

디렉토리 검색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어 비슷한 유형의 유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

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청자와 관련된 유물을 검색과정을 살펴보면, 대분류 재질, 중분류 도자기, 소분류 청자를 선택하면 청자와 관련된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청자에 대한 유물을 확인한 후 유물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유물 등록과 관련한 정보와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물을 검색하고 관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검색기능 이외에 관람후기 작성, 관심유물 등록, 이미지 다운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들은 검색 후 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소장품 검색



그림 4. 국립중앙박물관 주요소장품 검색 화면

2.2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구성 중 소장품 메뉴는 소장품, 기증, 보존과학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7,891건의 회화작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오른쪽에는 검색기능과, 작품유형, 작품 연도, 수집연도에 대한 분류 및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6].

작품유형 검색은 한국화, 회화, 조각, 공예, 뉴미디어, 건축, 디자인, 드로잉/판화, 사진, 서예로 구성되어 있어 유형별 소장품 관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도별 검색은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소장품의 시간흐름에 따른 작품들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5]에 보이는 화면 중 회화작품을 선택하면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규격, 관리번호, 작품유형 전시 및 비전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

설명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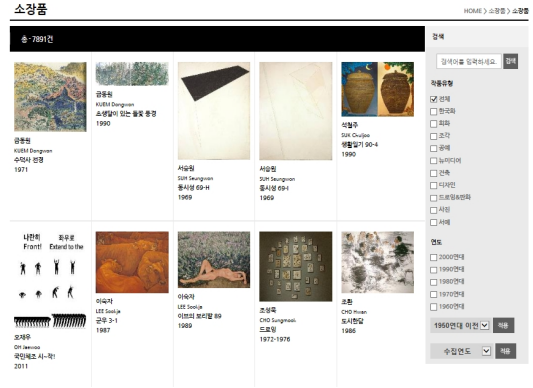


그림 5.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화면

IV. 활용 및 실행 방안

1. 디스플레이 전시 활용 및 실행 방안

1.1 유물 수집

일반적인 전시에서는 유물 수집은 실제 유물을 수집해야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전시에서는 실제 유물이 아닌 유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집 대상은 유물에 대한 자료조사 및 촬영된 유물 사진과 영상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유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물 정보의 대한 저작권 문제 및 이용 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진행된 연구 및 자료조사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 유물을 수집한다면 저작권 및 이용 허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 유물 촬영

HDR기술은 명암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의미하며 같은 물체에 대해 각자 다른 명암에서 촬영한 후 촬영된 사진의 합성을 통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해낼 수 있다. HDR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촬영한다면 실물과 같은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이처럼 카메라를 통해 문화유산을 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촬영 과정에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 유물촬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유물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의 한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유물의 현황 파악을 통해 팀 단위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한다.

1.3 디스플레이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의 발전은 실물이 아닌 영상을 실물처럼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과거 LCD 화면과 비교해보았을 때, OLED화면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보다 나은 세 가지 장점을 지닌다[7].

첫째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패널에서 바로 빛을 내기 때문에 색상과 밝기의 변화가 없고, 다각도에서 관람해도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어 동시에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다. 둘째 디스플레이로서의 OLED는 스스로 발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백라이트 등의 보조광원이 불필요하며, 기존의 전시에 사용되었던 유물별 특성에 맞는 조명 사용이 아닌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영상에 따라 픽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순수한 블랙과 화이트를 표현하여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실물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한 유물을 실제 모습과 가깝게 구현할 수 있지만 초기 디스플레이 구입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시 만난 우리문화 유산전’의 사례처럼 기업의 후원을 통한 디스플레이 기기를 확보하고, 기업은 공익사업의 후원을 통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후원을 통한 디스플레이 기기 확보가 중요하다.

1.4 전시관

전시를 구성함에 있어 전시 공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디스플레이 전시를 구성함에 있어 디스플레이 설치 위한 전시 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표 3]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

써 2015년 기준 전국에는 780여개의 박물관과 202개의 미술관이 존재하고 있다[8]. 이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422개소이며, 각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상설전시, 특별전시 등의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가 교체되는 시기를 활용하여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해당 박물관은 전시 준비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많은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균등하게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표 3.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박물관	39	332	315	94	780
미술관	1	50	140	11	202

2. 온라인 박물관 활용 및 실행 방안

2.1 DB서버 확장

데이터베이스(DB:DataBase)의 정의는 어느 한 조직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관련 데이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외소재문화재단을 비롯한 국외 한국문화재와 관련 있는 기관들의 통합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9].

국외소재문화재단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문화재 66,225점에 대해 온라인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디스플레이 전시와 온라인박물관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유물의 사진 및 영상 외에 추가적인 영상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추가될 사진 및 영상은 디스플레이 전시의 유물수집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전시와 연동하여 전시정보 및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2 검색 기능 추가

현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 DB검색 기능은 권역별 유물검색, 시대별 유물검색, 유형별 유물검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세부검색 기능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유물에 대해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문화재 조사보고서, 세계 속 한국문화재 이야기, 세계에 되살아난 한국문화재, 외국박물관 한국실 찾기, 국외 문화재 조사연구 소개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색기능은 외국박물관내 한국실 유물 검색 기능이다. 각 기관별 소장 유물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3 활성화 방안

현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은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유물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온라인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는 유물자체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소장하게 된 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관별 유물 수집 과정 및 한국문화재가 해외로 옮겨지게 된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내면 기본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및 연령의 이용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국내의 유물과 관련된 여러 기관 및 재단은 국내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 및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현재 16만여 점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현황파악 및 현지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된 기관 및 재단들은 현황 파악 및 연구조사 뿐만 아니라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해 보존·복원·현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을 통해 개관된 한국 문화재 전시실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대표하여 한국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한국문화재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활용이 활성화되어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연구결과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 때문에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스플레이화면을 활용한 전시와 온라인박물관을 생각해 보았다.

디스플레이 전시는 실제 진행된 전시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술 및 전시방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발전한 촬영 및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하여도 실제 유물과 유사한 느낌을 구현할 수 있으며, 대체재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전시에서 기대되는 점은 디스플레이 화면·촬영장비 및 기술·전시기법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시된 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와 똑같이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체계화된 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장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 및 교육활동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방식을 통해 온라인 박물관의 기능

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현재 구축되어있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정보관을 활용하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온라인 박물관은 구축할 수 있다. 온라인 박물관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두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앞서 연구조사 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된 내용의 업데이트를 통해 자료의 정보 및 사진,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박물관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모든 정보를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전시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 및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활용한 디스플레이 전시와 온라인 박물관은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에게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전시, 교육,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 활용 등 다양한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http://www.overseaschf.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1>

[2]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지, 제29권, pp.87-110, 2014,

[3] <http://webzine.overseaschf.or.kr/1/collection.jsp>

[4] 어일선, “박물관 전시에서의 디지털 매체 적용에 대한 고찰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212-219, 2010,

[5]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list>

[6]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List.do?menuId=2010000000>

[7] 문대규, 홍성화, “AM-OLED 이슈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p.1-51, 2007,

[8]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진한엠엔비, 2015.

[9] <http://overseas.nriq.go.kr/user/action/detailSearch.do>

저 자 소 개

박 성 환(Sung-Hwan Park)

준회원



- 1992년 2월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문학사)
- 2016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학과(석사과정)

<관심분야> : 역사콘텐츠, 문화유산, 디스플레이 전시

최 희 수(Hee-Soo Choi)

정회원



- 1991년 8월 : 서강대학교 사학과(문학사)
- 2009년 2월 : 서강대학교 사학과(문학박사)
- 2012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역사콘텐츠, 문화유산, 디지털인문학